

광주시, 대중교통 체계 지하철 중심 바꾼다

10억 들여 용역 다음달 발주
11명 구성 자문위원회 구성
2호선 운행 수송분담률 12% ↑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진행 중인 광주 대중교통 체계가 기존 시내버스 중심에서 지하철 중심으로 재편된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중심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을 다음 달 발주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용역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과 중복되는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기로 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노선을 연계하고 기능을 분담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도 연구한다. 교통카드, 통신사 GPS 정보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교통 수요를 반영할 계획이다. 광주에서는 단일 노선인 1호선의 연계성 저하로 도시철도 이용률이 떨어진다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해 2호선 착공 당시 3.6% 수준인 도시철도 수송 분담률

을 2호선 운행 후 12.1%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시는 공무원, 시의원, 교수 등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용역 추진 방향과 과업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3년간 120 콜센터, 온라인 등으로 접수된 시내버스 노선 관련 민원을 분석해 개편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는 개편안이 나오면 95개 동별 현장 설명회를 열고 버스조합 등의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다.

용역 기간은 3년으로 9억9000여만원이 들어간다. 다만 도시철도 1, 2호선 노선에서 벗어나 있는 지역에 대한 촘촘한 대중 교통망 구축 계획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2023~2025년 2호선의 단계적 준공 후 운행에 맞춰 대중 교통 체계를 큰 폭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지하철과 시내버스 이용률이 모두 높아지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신학연 인공지능 합작사 설립 광주시, 대진정보통신 등 협약

광주시는 18일 광주시청에서 대진정보통신·스누아이랩과 인공지능 기반 조성 업무협약(29·30번째)을 체결했다. 시는 이들 기업과 지역의 산·학·연이 참여하는 인공지능 합작기업·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 이들 기업은 광주과학기술원·광주테크노파크 등과 협력해 광주 법인과 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대진정보통신은 산업용 PDA 연구개발 및 생산관리, ICT 솔루션 구축, 빅데이터 연구개발 기업이다. 스누아이랩은 서울대학교 1호 인공지능 합작기업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 지적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고 인공지능 전문기업이다. 이용섭 시장은 “글로벌 수준의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으로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에서 디지털 뉴딜정책의 성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18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렸다. 이용섭 광주시장(가운데)이 대진정보통신(왼쪽), ㈜스누아이랩 등 2개사와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전남 상생, 공공기관 2차 이전 공동유치 성과내야”

조진상 전국지방분권협 의장 정책 토론회서 주장

광주시·전남도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된 제1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당시 전국 유일의 공동혁신도시 전략을 통해 국내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을 유치한 경험을 살려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진상 전국지방분권협회의 공동의장(동신대 교수)은 18일 나주의 한 호텔에서 열린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이전 대비, 광주·전남 유치 추진전략 마련 정책 토론회’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비 광주·전남 상생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현재 여론의 관심은 광주시

와 전남도가 (1차 이전 때처럼) 공공기관 유치를 공동으로 할지, 따로 할지라며 “지역사회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과도한 이견이나 갈등을 드러내지 않고 상생 협력 정신으로 공동 유치를 통해 공공기관 추가 유치가 성과를 내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의 경우 기존 10개 혁신도시 외에 조만간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추가될 예정이어서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공동혁신도시 조성 전략과 한전 유치 성공 사례를 거론하며 사도 간 상생 정신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공공기관 추가 유치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선결 과제로, 상생 협력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그동안의 혁신도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광주시가 느꼈던 불이익,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공기관이 이전으로 인한 지방세수 증대 혜택이 광주시에 돌아가도록 상생발전기금을 활용하고,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 시 광주시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교수는 아울러 “광주와 전남은 빠른 기간 내 공동 유치 특별기구(TF)를 꾸리고 유치 분야와 공공기관을 확정하는 등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을 지낸 이민원 광주대 교수는 환경사와 기초 법제를 통해 “현재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자칫 세종시 중심의 새로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 교수는 “세종시와 지역에도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한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그 수단으로, 행정수도 추진 이전에 기획했던 것보다 많은 기관의 이전이 필요하다”며 “국기관 일부는 혁신도시로 분산 배치하고, 공공기관이 설립한 기업 279개를 추가 이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대덕연구단지 이공계출연연구기관 역시 특성에 따라 전국 혁신도시에 분산 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남도·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광주전남지회·한국거버넌스학회·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이 공동주최하고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이 주관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세대수 ↑ 분양가 ↓

사업자, 광주시에 절충안 제시
시, 분양원가 공개 등 재검토 요청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해 사업자가 광주시에 절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광주시가 이를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향후 협의 과정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한양이 최대 주주로 참여한 빛고를 중앙공원 개발 주식회사는 이날 사업계획 변경안을 시에 제출했다.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비공용 시설 면적을 기존 7.85%에서 8.51%인 20만 7280㎡, 2370세대를 2995세대로, 용적률을 199.80%에서 209.47%로 늘린다는 내용이다. 평당 평균 분양가는 애초 1938만원에서 1883만원으로 낮추고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광주시와 한양 측은 애초 85㎡ 이하 1500만원, 85㎡ 초과는 2046만원, 85㎡ 이하 안대는 1350만원으로 분양가를 협의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업 대상지가 포함된 서구 전체를 고분양

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1500만원대 이상의 분양가는 현실적으로 책정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 측이 분양가를 일부 낮추고 후분양과 임대 방식으로 이익을 보장하는 절충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변경안은 전체 평균 분양가를 55만원 낮췄지만, 임대 246세대에서 999세대로, 분양가를 1350만원에서 1624만원으로 대폭 높였다. 하지만, 광주시는 비공용 시설 면적과 세대수 증가 등에 대해 사업자 측이 재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자 측에 분양 원가 공개를 요구해 도시공공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제출하고 시민 의견 수렴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분양 원가 공개 요구를 수용할지 미지수인 데다가 양측의 입장차도 커 협의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 사업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시민과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설득하려면 분양 원가 공개도 필요해 보여 강력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전남·전북 ICT 전문인력 3000명 양성

4년간 200억 투입

인공지능 중심도시 조성에 나선 광주시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지역 정보통신기술(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사업’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디지털 융합의 핵심인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소프트웨어 분야 수요에 대응해 실무형 전문 인재를 4대 권역으로 나눠 4년간 육성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광주는 올해 인공지능 사관학교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전남·북이 참여한 컨소시엄 형태로 선정됐다. 50억원씩, 4년간 국비 200억원을 투입해 광주 영상박물관에 사업 총괄 허브(이노베이션 스퀘어)를 구축하고 주요 지역에 복합 교육 거점을 설치한다. 에너지·자동차·헬스케어·문화콘텐츠, 농생명·금융, 농수산·미래형 운송기기 산업 등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수준별 교육과정을 통해 750명씩, 3000명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사회서비스원 직원 10명 공개 채용

본부 직원 6명·센터장 4명

7월 개원한 광주사회서비스원은 “본부 직원 6명·센터장 4명 등 직원 1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18일 밝혔다. 본부 직원은 경영관리 2명·사회서비스 4명이다. 이들은 이미 채용된 경력 직원 6명과 함께 사회서비스원의 기초를 다지고 국공립어린이집과 종합재가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업무를 한다. 센터장은 종합재가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고 복지사업을 전

담하며 서구와 북구에 각각 배치된다. 24일부터 28일까지 광주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gipass.torc.co.kr)에서 원서를 받는다.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9월 12일 인성·적성 검사, 9월 19일 면접시험을 거쳐 9월 말까지 채용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 시설을 수탁·운영하고 민간 사회복지 시설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관리 등의 업무를 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내 삶이 하나 듯...
수목장은 보성 늘푸른입니다.

고객상담센터 062-412-2800

자연이 준 삶 자연으로 돌려주세요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세상이 변하듯 ... 장묘문화는 수목장이 대세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보성군 소재

(순천, 화순, 나주, 여수, 광양, 고흥군, 장흥군)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10기 이상 선산도 가능합니다.